

12·19 재·보선 광주·전남 8곳

장흥·해남군수 등...대법원 판결따라 10곳 될수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올 하반기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모두 대상이 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2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어서 경우에 따라 10곳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단체장의 경우 박희현 해남군수가 선거법 위반과 수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도중인 지난 2일 시작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장흥군의 경우 지난 7월 26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인규 군수의 부인 김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남

편인 김 군수의 당선이 무효처리돼 재선거 대상으로 확정된 바 있다.

광역의원의 경우 광주 북구 제3선거구(임동, 용봉동, 오치1·2동) 이상동 광주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재선거가 치러진다.

기초의원들은 나주 가선거구의 경우 김덕수 의원이 지난 7월 지방으로 옮겨 보궐선거 대상에 포함됐다.

대선 후보 정당 경선 과정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24건

지난 7월부터 실시된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 경선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광주·전남에서만 24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는 17일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광주 6건, 전남 18건 등 모두 2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8건은 고발, 10건은 수사 의뢰, 6건은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심관공·교통편의 제공 6건, 사이버 이용 2건, 인쇄물 배부와 전화 이용 특정 후보 지지 각 1건 등이었다.

현장과 시각

愛憎의 광주국제영화제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교사 P씨는 일반 개봉관은 물론 광주극장의 '예술 영화'도 모두 섭렵하는 영화광이다. 부산·전주·제천 등 영화제 도시로 '인정 관람'을 가는 P씨에게 광주 국제영화제는 육체적 피로감, 비용 부담(숙박비·교통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행복의 축이었다.

지난해 우여곡절을 겪었던 터라 올해 행사 개최 여부가 궁금했다. 취재 결과 날짜(11월29일부터 5일간)가 잠정 확정되고 프로그램 섭외도 진행중이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광주국제영화제는 '애증의 대상'이다. 짧은 시간에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영화제가 있어야 한다는 큰 그림에는 동의하지만, 영화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흔들게 된다.

배격대던 광주국제영화제가 결정적으로 파행을 맞은 건 지난 2005년 A씨가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부터다. 프로그래머 사퇴 등이 이어지며 중앙 영화계는 냉담하게 돌아섰고 '특정인 배제'를 외치며 진행했던 광주시와 조직위원들과의 갈등, 사무국의 유유부단함, 지역 영화계 인사들의 내분 등이 얽히면서 영화제는 표표를 잃었다. 결과는 문광부 평가 최하위라는 수모였다.

시·국비 삭감 때문에 1억5천만원(2005년 16억원)으로 진행된 지난해 영화제는 "불세만은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민간 중심으로 치러졌다.

문제는 이후 '불세를 살리기 위한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영화제는 임시방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영화제가 끝난 후 논의는 실종됐다.

그러니 올해 행사의 경우 한해가 가려져야 부랴 부랴 땀흘림으로 진행한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영화제 존폐와 관련해 절박함을 갖고 있다면 신뢰를 잃었던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고, 영화제 당위성을 알리는 작업들을 진행했어야 했다.

훗카이도 유바리에서 열리는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시가 파산을 선언, 잠정중단된 상태지만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유바리 판타'를 조직, 영화제 개최를 위해 뛰고 있다. 올해도 '충무로 영화제'가 새로 출범하는 등 영화제는 전국, 세계 곳곳에서 팬들을 만나고 있다.

비판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고 했다. 최근 1년간 영화제에 관련된 논의들은 전무한 상태다. 어쩌면 이번이 '영화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반대를 위한 반대'를 버리고 난상토론을 넘어 해답을 찾는 게 필요하다.

취재 후 P씨에게 영화제 개최 소식을 알려주자 너무 기뻐했다. P씨처럼 영화를 좋아하는 이들의 행복은 이어질 수 있을까.

/mekim@kwangju.co.kr

현직 부장검사 문국현 캠프 합류

광주지검 김경진 검사 법률특보 맡아

현직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법원장 장의 주자인 문국현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문 후보측은 17일 "지난 11일 검사직을 사직한 광주지검 김경진 부장검사가 내일부터 대선 캠프에 합류한다"며 "김 부장검사는 재직 중 검찰 내부 혁신을 했던 법조인이며 환경범죄처벌, 통일된 양형기준 마련, 검찰공무원의 평생학습

확대 등에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후보, 국정운영의 철학과 통찰력이 없는 후보라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을 지식정보사회, 투명윤리사회로 만들 수 있는 후보는 '인간중심'을 주창하는 문 후보 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문 후보 측에 밝혔다.

문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게 된 김 부

장검사는 18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열릴 예정인 창조한국당(가칭) 창당 설명회에 참석, 문 후보 지지를 공식선언한 뒤 국립5·18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한편 문국현 후보의 대선 조직인 '창조한국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에서 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창당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중앙당은 다음달 4일 창당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50여년만에 만난 부부

17일 오후 금강산 외곽호텔에서 열린 16차 이상가족 상봉에서 북측의 박시권씨가 50여년만에 부인 이분섭씨를 만나 오열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차떼기 장본인' 등 복귀 논란

최돈웅 前의원 등 과거 '민정계' 인사 대거 복귀

한나라당이 지난 2002년 대선 '차떼기 불법자금 모금'의 당사자인 최돈웅 전 의원을 비롯, 김기배·김중위·이세기 전 의원 등 과거 '민정계' 인사들을 복귀시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최 전 의원 등은 지난 15일 강재섭 대표로부터 정식으로 상임고문 임명장을 받았다.

이 중 단연 주목을 받는 인사는 최돈웅 전 의원. 그는 이회창 전 총재의 최측근인

사모 기업들로부터 50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이른바 '차떼기'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실형을 산 인물이다.

또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김기배 전 의원은 공천에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서울 구로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런데 이들이 임명장을 받은 날은 중앙선대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명박 후보가 "차떼기 당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날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이 밖에도 지난 1999년 이른바 '세풍사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뒤 탈당한 서상목 전 의원과 '여기자 성추행 사건'의 주인공인 최연희 의원에 대한 상임고문 위촉까지 고려했지만, 여론의 악화를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구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보수세력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내린 결정으로 이해해 달라"고만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日 복역중인 한국인 2명 국내 첫 이송

법무부는 일본에서 형이 확정돼 수형 중인 강모씨와 이모씨를 국제 수행자 이송제도에 따라 최근 국내 교도소로 옮겨 남은 형의 집행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에서 형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을 국내로 이송한 것은 처음이며 해외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 수행자의 국내 이송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이뤄졌다.

강씨는 출입국 사범으로 징역 4년, 이씨 역시 출입국 사범으로 징역 3년4월이 선고됐으며 이들이 국내 이송을 신청해 지난해 10월 열린 제1차 국제 수행자 이송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차관)의 이송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차관)의 이송심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 재가, 일본 법무부의 협의를 통해 이송 대상으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남북, 22~23일 금강산서 경제·에너지 지원 협의

남북은 오는 22~23일 금강산에서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관계자들이, 북측에서는 외무성 과 유관 부처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는 2·13합의와 10·3 합의에 따라 북측에 제공될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의 구체적 품목 및 공급 방법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로, 조만간 개최될 제3차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증가집 설령탕

확장이전

조종간 일렉트릭 난방시스템에 증가집의 정장을
다들 알아 고쳐 장장한 서비스를 새로운 온누리에서
실제 보상을 극대화 고쳐 보십시오.

1. 난방, 2. 공기청정, 3. 공기정화, 4. 환풍기, 5. 공기청정기, 6. 공기정화기

증가집 설령탕 | 예약전화 062)374-0015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1/3로 줄었다

에너지, 전기, 가스, 열을 절약하는 신 기술
에너지, 전기, 가스, 열을 절약하는 신 기술
에너지, 전기, 가스, 열을 절약하는 신 기술

현장수행 계약금액
무상 지원금 혜택

40평~200평에 무상지원
▶ 한국전력공사 후원
▶ 난방기, 환풍기, 공기정화기,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공기정화기

에너지, 전기, 가스, 열을 절약하는 신 기술
에너지, 전기, 가스, 열을 절약하는 신 기술
에너지, 전기, 가스, 열을 절약하는 신 기술

TEMPIA
111-955-4222, 062-701-7117